

우리 안에 있는 빛

(눅11:33-36)

서론: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빛입니다(창1:3).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(마5:14).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꼭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(벧전2:9, 사60:1-2).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며, 빛이 임한 것입니다.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하는 빛이 생긴 것입니다(요셉, 다윗, 다니엘, 바울). 빛이 임한 나, 내 속에 임한 빛 때문에 가정,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(창12:1-3). 날마다 내 속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.

1.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가 분간하라(33절)

가.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야 합니다.

-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.
-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(사60:1-2).

나. 우리가 짓지 않은 죄, 원죄를 보고 어둠이라고 합니다.

- 원죄 속에 빠져서 창세기 3장, 6장, 11장의 저주가 지금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
- 원죄를 모르니까 잘못된 진단을 하고,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며,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.
-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진 나를 건지기 위해 주신 빛의 언약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(창3:15, 창6:14, 출3:18).
- 이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(사60:1, 요1:4, 요1:9, 벧전2:9).

2. 영안을 떠라(34절)

가.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다 가진 만큼 실패하게 됩니다.

- 사탄이 가정(창세기 3장), 사회(창세기 6장), 국가(창세기 11장)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
-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바리새인들도 영안을 뜨지 못하니 요한 웨슬레, 무디 같은 복음운동 하는 전도자를 막은 것입니다(중세교회).
-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에 이 빛이 온 줄 알고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.

나.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이 와 있기에 체험해야 합니다.

- 내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와 있기에 깨닫고 믿으면 됩니다(요1:12, 롬5:8, 요5:24, 롬10:9-10).
-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늘 틀린 길로 다녔기에 눈만 뜨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.

결론: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을 본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다 해결 되는 것입니다.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(골1:13, 엡5:8). 이 빛이 개인, 가정, 산업에 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. 이 빛이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. 이 빛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. 빛이 임함으로 어두움이 없어질 것입니다.